더 안전하고 편리하게…확 바뀐 벤츠 C-클래스 국내 상륙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가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사진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매틱 아방가르드 모델(위)과 실내 인테리어(아래). 〈벤츠코리아 제공〉

'C 200 4매틱 아방가르드'·'C 300 AMG 라인' 고객 인도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기본 탑재 컨트롤 쉬워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로 안전성 대폭 향상
내달 20일까지 160만원 상당 '컴포트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메르세데스-벤츠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가 국내에 상륙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리미엄 중형세단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의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더 뉴 C-클래스는 지난 2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C-클래스의 6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매틱(MATIC) 아방가르드'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 등 총 2개의 라인업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더 뉴 C-클래스는 벤츠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와 패밀리룩을 이루는 내외관 디자인과 다양한 혁신 기술, 디지털 요소가 대거 반영된 게 특징이다.

외관은 다이내믹한 비율과 간결한 라인으로 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를 구현했으며, 실내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25㎜ 늘어난 휠베이스로 넉넉한 공간감을 갖췄다.

이밖에 11.9인치의 고해상도 LCD 센트럴 디스플레이,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 추가됐다.

특히, 더 뉴 S-클래스를 통해 최초로 선보인 2세대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문 인식을 통한 간단한 사용자 로그인으로 즐겨찾기, 행동 기반 예측, 일정 관리 등 개인화된 설정과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 뉴 C 200 4매틱 아방가르드와 더 뉴 C 300 AMG 라인에는 모두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로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또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효율성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이밖에 더 뉴 C-클래스 전 라인업에는 최첨단 주행 보조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Driving Assistance Package Plus)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해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했으며, 더 뉴 C 300 AMG 라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MBUX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내비게이션, 디지털 라이트(DIGITAL LIGHT) 등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능이 탑재됐다. 또 국내 고객들이 선호하는 통풍시트, 전동 트렁크, 무선 스마트폰 연결 등이 전 라인업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편의성이 높아졌다.

벤츠 코리아는 더 뉴 C-클래스 국내 고객 인도를 기념해 다음달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 후 출고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숙박과 다이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160만원 상당의 '컴포트 럭셔리 패키지'를 제공한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C-클래스는 국내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와 인기를 얻으며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며 "더 뉴 C-클래스는 넉넉하고 안락한 실내 공간, S-클래스에 소개됐던 최첨단 기술과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대거 탑재해 동급 최고 럭셔리 모델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매틱 아방가르드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의 가격은 각각 6150만원과 6800만원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누적 수출 30만대 돌파

한국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사진〉가 지난달 누적 수출량 30만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GM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국내에서 개발·생산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는 2019년 11월 첫 수출 이후 동일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지난달까지 누적 31만1023대(선적 기준)가 수출됐다. 월평균 약 1만대 이상이 수출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12만6832대가 수출되며 국내 승용차 모델 중 수출량 기준 2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트레일블레이저는 형제 차종인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GM은 전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해 1분기 미국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부문 소매 판매 점유율 10%를 달성한데 이어 3분기에는 147%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매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GM은 올해 출시된 초대형 SUV '타호'와 기존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이쿼녹스, 트래버스로 SUV의 풀 라인업을 완성하는 동시에 2023년부터는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출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원하는 곳에서 수리 차량 받으세요

토요타코리아, 판금·도장수리 홈투홈 서비스 실시

토요타코리아가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홈투홈 서비스'(Home To Home Service)를 실시한다. 또 토요타 중고차 구매 이후 서비스센터에 첫 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 캠페인도 펼친다.

3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 차종의 판금·도장 수리 고객 대상으로 홈투홈 서비스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서 차량을 전달받아 수리 후 다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해주는 서비스다.

토요타 고객이라면 누구나 1회 사용할 수 있고, 편도 50㎞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기간 동안 판금·도장 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룸 스프레이, 아로마 오일 등으로 구성된 '릴랙스 키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전국 25개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토요타 중고차를 구매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센터에 입고하는 고객에게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약 40개 항목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SMS(Smart Maintenance Service)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프론트 와이퍼 러버 증정, 토요타 순정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는 타이어 안심 보장 서비스를 기존 6개월에서 추가 6개월 기간 연장 및 차량 살균소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홈투홈 서비스는 고객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요타 서비스의 감동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렉서스 전기차 콘셉트카 'LF-Z 일렉트리파이드' 특별전

렉서스코리아는 렉서스 브랜드의 변혁을 상징하는 전기차(BEV) 콘셉트카 'LF-Z 일렉트리파이드'(LF-Z Electrified·사진)를 렉서스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 특별 전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 전시되는 'LF-Z 일렉트리파이드'는 지속가능한 삶과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렉서스 브랜드 전동화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22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국내 최초로 전시된 바 있다.

BEV 전용 플랫폼과 새로운 4륜 구동 기술인 '다이렉트4'(DIRECT 4) 채용, 새로운 실내 인테리어 컨셉인 '타즈나 콕핏'(Tazuna Cockpit) 적용 등으로 더욱 개방적인 실내공간과 운전자의 선호도와 행동 특성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컨시어지 기능 등 전기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다.

렉서스는 이번 특별 전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커넥트투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도 추진한다.

개인 SNS 채널에 LF-Z 일렉트리파이드 인증샷을 올린 고객 모두에게 커넥트투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을 증정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일상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텀블러 지참 고객에게는 커넥트투 아메리카노 1+1 쿠폰을 제공한다. 또 기간 한정으로 'LF-Z 민트라떼' 스페셜 음료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안전운전 습관 유지하면 최대 48만원 혜택

기아 '세이프티 리워드' 출시…리스·렌트 상품 이용 고객 대상

기아는 4일 커넥티드카를 기반으로 수집되는 주행정보로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해 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구매 프로그램 '세이프티 리워드'(Safety Rew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리워드'는 기아 전용 리스·렌트 상품 '케이-설루션'(K-Solution)을 이용하는 고객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기아 커넥트'(Kia Connect)에서 안전운전 점수를 80점 이상 달성하면 월 납입금 중 1만원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연계 구매 프로그램이다.

기아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객의 안전운전을 독려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도 경감해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설루션'은 기아가 지난해 11월 현대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자동차 운용형 리스·렌트 상품으로 ▲모닝 ▲레이 ▲스팅어 ▲K9 ▲모하비 등 차량 이용 고객 대상으로 특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제휴 프로그램이다.

'세이프티 리워드'는 '케이-설루션'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한 첫 번째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차량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아 커넥트 앱에 가입하고 현대캐피탈 앱 2.0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 연동에 동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후 12개월 차가 되는 달 1일의 안전운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다음 1년간 매달 월 납입금 1만원을 지원받으며 이후 12개월 차가 되는 시점마다 안전운전 점수를 산정한다.

안전운전 점수는 운전자의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심야주행 이력 등을 기준으로 기아 커넥트 앱에서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되며 60개월 리스·렌트 이용 고객의 경우 최대 48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한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해당 프로그램 대상 차종을 확대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